

2019년 5월 5일 / 부활 제3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이란 말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앞에 죽음의 문화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인간 생명과 자연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입당성가 :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5장 27절-32절, 40절-41절

안 내 : 대사제가 최고의회에서 사도들을 심문하며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위협하지만, 사도들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 상 : 대사제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며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화답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5장 11절-14절

안 내 :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과 살해된 어린양에게 경배하는 환시를 통하여 천상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묵 상 : 수많은 천사들이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좌에 앉아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라며 외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21장 1절-1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이 샘’ 참조

예물준비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 성 체 : 165번 ‘주의 잔치’

영성체 후 묵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빵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인간 생명도 자연 생명도 돌보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생명은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켜 줍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고 죽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생명은 부활합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2019년 5월 12일 /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인 오늘, 우리는 사제성소와 수도성소가 참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하느님의 양떼인 동시에 가족과 사회, 나라를 행복하게 이끄는 아름다운 목자로서 늘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55번 '착하신 목자'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3장 14절. 43절-52절

안 내 : 바오로가 바르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증언을 기뻐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여 내쫓습니다.

묵 상 :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답송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7장 9절. 14절-17절

안 내 : 요한은 환시 중에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 상 :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앓을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기꺼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0장 27절-3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이 샘’ 참조

예물준비 : 211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 성 체 : 163번 ‘생명의 성체여’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받은 이들이
새벽이슬 촉촉한 꽃봉오리 모습으로
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 활짝 피우려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달콤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의 부요보다 더 충만함이 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어
님이 부르실 때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착한 목자이신 님을 따르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2019년 5월 19일 / 부활 제5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시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광은 주님께서 겪으신 수난의 결과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수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과 부활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4장 21절-2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선포합니다.

묵 상 :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화답송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21장 1절-5절

안 내 :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는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 상 : 주님을 믿고 의지한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3장 31절-33절, 34절-3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이 샘’ 참조

예물준비 : 46번 ‘사랑의 송가’

영 성 체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해지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019년 5월 26일 / 부활 제6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청소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청하며 이 전례를 시작합니다.

입당성가 : 500번 '평화의 하나님'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5장 1절-2절, 22절-29절

안 내 :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민족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대하며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안티오키아에 바오로 사도의 일행을 파견합니다.

묵 상 :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많은 억압적인 율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싸우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그토록 빨리 잊어버리고 초대 교회는 또다시 백성을 율법에 얽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의 자유와 해방을 크신 은총으로 사는 우리는 인간을 억압하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화답송 : ◎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21장 10절-14절, 22절-23절

안 내 :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고, 어린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 되어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묵 상 :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시어 그들과 하나를

이루시니 천상 예루살렘에는 세속적인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느님과 어린양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십니다. 이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4장 23절-2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이 샘’ 참조

예물준비 : 25번 ‘사랑의 하느님’

영 성 체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세상이 주는 평화는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가 싸웁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나눔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기 위해 서로가 희생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폭력과 권력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을 사랑으로 둘러보면,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게 될 일들이 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며,

부활을 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